



헬무트 도이취 교수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인터뷰: 이현우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악고등학교 재학, 현업 Webernorgel 교의 음악감독)

리스도음악의 권위자이자, 모차르트, 하이든, 그리고 프랑크 고전음악의 탁월한 음악적 해석을 가진, 프라이부르크음대 교수로 계시는 중인 헬무트 도이취(Helmut Doitch)를 만나보았다. 그는 특별한 연주 활동은 없지만 리스도의 피아노소나타나 오케스트라곡을 소브란적으로 편곡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가 녹음한 리스도 300년과라에서 열린 'Dispositio d'organi'에서 유럽의 훌륭한 음반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